

포털 도서검색서비스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 구글도서검색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to Book Search Services of Web Portals: Focusing on Google Book Search

김 성 원(Sungwon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도서관계의 대응방안 |
| II. 국내의 현황 | 1. 도서관계 자체 추진방안의 모색 |
| 1. 구글도서검색 전개과정 및 현황 | 2. 도서관 OPAC 기능 개선 |
| 2. 구글도서검색 관련 선행연구 및
주요논의 | 3. 협력시 고려사항 |
| 3. 국내 포털의 동향 | IV. 결 론 |

초 록

방대한 이용자 기반을 지닌 인터넷 검색 포털인 구글은 도서검색(Book Search)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은 도서검색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정보자원의 확보를 위해 출판계 및 도서관계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출판계와는 출판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도서의 이용을 목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도서관계와는 도서관이 소장한 장서의 디지털화 및 디지털로 변환한 자료의 활용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구글도서검색 서비스는 방대한 이용자 규모에 기반을 두는 구글의 영향력에 따른 독점의 위험성과 독점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점들로 인해 많은 논란을 빚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구글도서검색과 관련하여 도서관계가 취해야 할 대응방안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키워드: 구글도서검색, 구글, 도서검색, 포털 도서검색, 포털, 장서 디지털화, 디지털화된 도서, 대응방안

ABSTRACT

Google, an internet search service with extensive user base, has provided Book Search service. Google has pursued collaboration with publishers and libraries to obtain content for Book Search service: publisher community for the purpose of sourcing the books with copyrights, and the libraries for the purpose of digitizing their collections and also utilizing already digitized resources. Google Book Search Service has evoked significant controversy because of the potential monopoly problems and its risk, accompanied by Google's huge influence and broad user spectrum. This study, thus, suggests the countermeasures that library community should prepare in order to cope with the Google Book Search.

Keywords: Google Book Search, Google, Book Search, Portal Book Search, Portal, Digitization of Library Collection, Digitized Books, Countermeasures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sungwonk@cnu.ac.kr)

• 접수일: 2010년 11월 25일 • 최초심사일: 2010년 12월 3일 • 최종심사일: 2011년 3월 28일

I. 서론

지식정보사회로의 전이에 따라 모든 분야의 업무 관행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특히 정보를 다루는 도서관계에는 정보통신기술의 접목에 따라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에는 기존 도서관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변화와 더불어 도서관의 근본적인 가치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변화도 병존하고 있다.

도서관 및 기존의 정보유통 분야에 정보통신 기술이 도입됨으로써 발생한 가장 근본적 변화는 자료의 형태가 물리적 실체를 가지는 인쇄형 책자에서 디지털로 변환된 컴퓨터 화일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연쇄적으로 정보유통 및 이용행태를 변화시켰고 도서관의 기능 및 사서의 역할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¹⁾

정보자원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목적은 미래 세대를 위해 자원을 잘 보존하기 위한 것과 더불어, 오늘날의 이용자에게는 더 향상된 방법으로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함이다. 도서관계가 구글 등 많은 이용자를 가진 포털과 협력하는 이유는 두 번째 목적인 더 향상된 방법으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현 세대에게 익숙한 포털과의 협력이 이용자들에게 좀 더 효과적인 정보접근을 제공하는 방법이라는 판단에 기인한다.²⁾ 이용자들이 익숙한 포털과의 협력을 통해 이용자들이 좀 더 편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구글 등 포털이 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프로젝트의 주요 협력자로 대두되게 되었다 할 수 있다.

본고는 정보통신 기술의 접목으로 야기된 변화가운데 자원의 디지털화가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포털과의 협력 문제에 있어 도서관계가 어떻게 대응해야 좋겠는가 하는 문제를 포털과의 협력하에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디지털화 프로젝트인 '구글 도서검색(Google Book Search)'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II. 국내외 현황

도서관 자원의 디지털화는 구글도서검색이 화두가 되기 이전부터 도서관계 자체적으로 기획되고 추진되어 왔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Internet Archive, Open Library Project 등의 프로젝트를 들

1) Jennifer C. Hendrix, "Checking Out the Future. Perspectives from the Library Community on, Information Technology and 21st-Century Libraries," *Policy Brief*, No.2(Feb. 2010), <www.ala.org/ala/aboutala/offices/oitp/.../ala_checking_out_the.pdf> [cited 2010. 9. 10].

2) Jill E. Grogg and Beth Ashmore, "Google Book Search Libraries and Their Digital Copies," *Searcher*, Vol.15, No.4(2007), pp.18-27.

수 있으며 현재도 다양한 프로젝트 들이 진행되고 있다. 2007년 4월 기준으로 디지털로 변환하여 구축한 자료가 백만권을 넘는 프로젝트들도 Gutenberg, ONLINE Books page, Universal Library Project 등 3개 이상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³⁾ 또한 개별 도서관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프로젝트는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거의 모든 도서관에서 추진되고 있고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구글도서검색을 포함한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의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의 토대로서 국내외 관련 동향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구글도서검색 전개과정 및 현황

구글도서검색의 전개과정과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구글도서검색 서비스가 구체화되기 이전에도 미국의회도서관의 'American Memory' 프로젝트, 'Gutenberg' 프로젝트, 'the Million Book' 프로젝트 등 이미 많은 도서관에서 장서의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었다. 구글은 초기 도서검색서비스 추진방향의 설정에 있어 이들 프로젝트를 참고하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⁴⁾

구글도서검색 서비스 출현 이전에 이미 도서관 장서의 디지털화 프로젝트들이 있었음에도 구글의 도서 디지털화와 검색서비스가 많은 관심을 받고 논란을 야기시키게 된 것은 방대한 이용자 기반을 가진 구글의 인지도, 이전의 도서관 주도의 프로젝트들에서 손대지 못했던 저작권 공정이용에 관련된 조건의 정리, 그리고 디지털화 프로젝트 추진에 투입하는 자원의 광대성과 추진속도의 신속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⁵⁾

구글도서검색은 구글의 설립자인 Sergey Brin과 Larry Page가 스탠포드대 디지털도서관 구현에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경험을 통해 미래에는 전 세계의 도서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을 것이라 상상했던 것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구글은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서관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관련한 구글의 관심은 설립 초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기업의 속성상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모델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정보통신분야의 기업들은 늘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가능성 있는 다수의 신규사업모델을 기획하여 육성하다가 그 가운데 수익성이 확인되는 사업모델을 집중하여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을 염두에 둔다면 구글이 처음부터 지금의 사업규모를 계획하였다기 보다는 가능성 있는 여러 사업모델의 하나로 육성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Robert J. Lackie, "From Google Print to Google Book Search: The Controversial Initiative and Its Impact on Other Remarkable Digitization Projects," *The Reference Librarian*, Vol.49, No.1(2008), pp.35-53.

4) Google, *History of Google Books*, <<http://books.google.com/intl/en/googlebooks/history.html>> [cited 2010. 10. 14].

5) Grogg and Ashmore, *op. cit.*

디지털 도서관에 관련한 구글의 관심은 2002년 소규모의 전담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구체화되며, 2004년 'Google Print'라는 명칭으로 최초의 서비스를 출범시키고 출판계와 도서관계의 파트너들을 참여시키게 된다. 2005년에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성격을 반영하여 'Google Book Search'라는 서비스명으로 개칭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구글도서검색 서비스에 포함되는 도서관 소장자료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출판계와 갈등을 빚게 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2008년 양측이 합의안을 도출하기 까지 많은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합의안의 도출 이후에도 관할법원이 2009년 11월 19일 수정된 화해합의서를 예비승인하기까지 많은 논란을 겪었다.⁶⁾

구글도서검색 서비스를 둘러싼 출판계와의 저작권 분쟁은 수정화해합의안이 관할법원의 예비승인을 받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이의가 제기되고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⁷⁾ 또한 저작권 문제 이외에도 도서관계를 비롯한 기존 도서 유통의 중심이 되어 왔던 관련 기관과 미해결된 많은 문제들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구글은 '도서검색 서비스를 통한 정보의 유통을 중세 인쇄술의 발명에 비견할 정도의 큰 개혁'으로 정의하고 인류와 정보를 연결하는 노력을 지속하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여러 논란 속에서도 디지털 정보자원의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단행본 700여 만 권의 원문을 확보하고 있으며, 출판계와 도서관계와의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원문 제공을 확장해 가고 있다.⁸⁾

구글도서검색 서비스는 대상 도서의 저작권 상태에 따라 상이한 방법으로 제공되고 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소멸된 저작권 비보호 도서의 경우 이용자들은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구글을 통해 원문을 열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저작권이 유효한 도서의 경우에는 다시 저작권 확보 여부에 따라 서비스 유형이 구분된다. 구글이 출판사와의 협의를 통해 온라인 열람권한을 확보한 경우, 구글을 통해 원문을 직접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온라인 열람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협력 도서관이 자료에 대한 온라인 열람권을 보유한 경우, 해당 도서관을 통해 원문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소속된 이용자의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소속원이 아니라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구글과 협력 도서관 모두 온라인 열람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원하는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을 통해 대출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서점을 통해 구매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구글은 소장 도서관이나 판매처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은 유효하나 더 이상 유통되지 않고 절판된 도서의 경우에는 중고서적 판매처나 소장 도서관으로 안내를 제공한다.⁹⁾

저자 및 출판사 등의 저작권자는 관련 도서가 구글을 통해 서비스되는 것에 동의하면 도서에 대한 저작권을 구글의 '도서권리등록소(Book Rights Registry)'에 등록함으로써 보유한 저작권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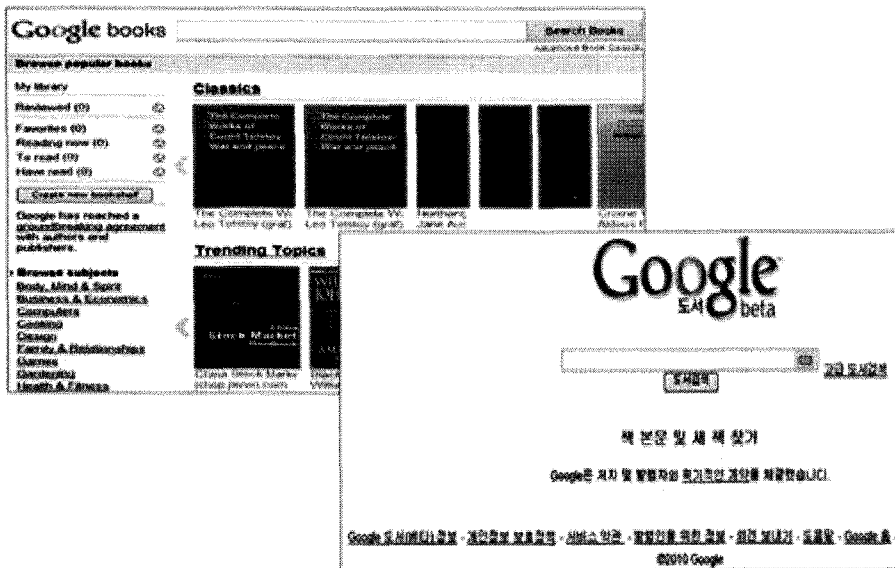
6) 구글, 도서검색 저작권 본건화해, <<http://www.googlebooksettlement.com/>> [인용 2010. 10. 5].

7) 세계일보, 구글전자도서관 곳곳서 제동, 2010년 4월 7일.

8) 구글, 전개문서.

9) 구글, 도서검색정보, <<http://books.google.com/googlebooks/about.html>> [인용 2010. 10. 5].

의 이용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 받는다. 구글을 통해 서비스되기를 원하지 않은 저작권자의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일부의 용도로만 제한하여 이용되도록 저작권의 일부 사용만을 선택적으로 승인할 수도 있다.¹⁰⁾



〈그림 1〉 'Google Book Search' 및 '구글도서검색' 메인화면

서비스를 위해 〈그림 1〉과 같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도서검색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용의 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기능을 소개한다. 우선 지도 서비스와의 연동을 통해 특정 지역과 관련된 도서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인기 인용구를 중심으로 관련된 저작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되고 있다. 또한 내 서재 기능을 통해 한번 검색한 도서의 목록과 원문을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색인을 통해 도서를 검색하도록 하는 새 홈페이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¹¹⁾ 위 한글과 영문화면 예시의 차이에서 볼 수 있듯이 서비스 지역에 따라 인터페이스뿐 아니라 제공하는 기능에도 차이가 있어 정보격차의 심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구글은 1,800만 건 이상의 도서 자원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방대한 자원의 확보하는 방법으로 구글은 도서와 관련된 주체들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다.

10) 도서관련연구소, “구글과 미국 출판계의 화해합의안은 도서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도서관련연구소 웹진, 42호 (2009. 9. 30), pp.6-7, <http://webzine.nl.go.kr/publish/krili/200909_01/pdf/tendency01_0930.pdf> [인용 2010. 9. 10].

11) 구글, 도서검색정보, <<http://books.google.com/googlebooks/about.html>> [인용 2010. 10. 5].

주요 협력의 대상으로 출판사와 도서관이 있다. 출판사의 경우에는 현재 유통 중인 그리고 미래에 출판할 도서에 대한 이용권 확보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미 저작권이 만료되고 절판된 자료의 확보도 필요한데 이러한 절판 및 저작권 만료 도서의 확보를 위한 협력의 파트너로 선택한 것이 도서관계이다.

2011년 3월 현재 구글도서검색의 도서관 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도서관은 21개 도서관인 것으로 파악된다. 절대 수에 있어서는 많은 수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 하버드 등 미국 대학 도서관과 뉴욕공공도서관, 일본 게이오대학교와 프랑스의 리용시 도서관 등 관중과 지역을 망라하여 영향력 있는 도서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¹²⁾ 또한 OCLC(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도 서지 DB인 'WorldCat'의 서지정보를 구글도서검색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¹³⁾ 이들 도서관은 구글과의 협력프로그램의 대상으로 제공하는 디지털화 대상자료의 범위에 따라 저작권이 해결된 도서만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과 저작권 상태와 무관하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도서를 대상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도서관의 두 범주로 크게 나눌 수 있다.¹⁴⁾

2. 구글도서검색 관련 선행연구 및 주요논의

구글도서검색에 대한 선행연구와 주요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한 서지에 따르면 구글도서검색과 관련하여 2005~2010년간 발표된 자료 가운데 영어로 쓰여진 자료만 3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¹⁵⁾ 이들 관련 저술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나 구글도서검색과 관련하여 크게는 서비스의 전개과정, 도서관과의 관계, 저작권을 중심으로 하는 법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 영향 등의 관점에서 다룬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구글도서검색과 관련한 국내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DBPIA'를 대상으로 검색을 시행하였다. 검색어를 '구글도서검색'과 '구글 북서치'로 하여 검색한 결과 검색되는 문헌이 없었다. 다시 검색어를 '구글'로 확장하여 검색한 결과 총 101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으며, 전자책 및 신문기사 30건을 제외한 정간물 기사는 71건이었다. 이 가운데 학술지에 수록된 학술기사는 10편인 것으로 파악되나 구글도서검색과 간접적으로나마 관련되었다고 판단되는 학술기사는 지적재산권관련 1편, 구글스칼라(scholar) 검색기능과 관련한 논문 1편¹⁶⁾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글도서검색이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

12) Google, *Library Partners*, <<http://books.google.com/googlebooks/partners.html>> [cited 2010. 12. 9].

13) OCLC, *OCLC and Google to exchange data, link digitized books to WorldCat*, <<http://www.oclc.org/news/releases/200811.htm>> [cited 2010. 10. 15].

14) Grogg and Ashmore, *op. cit.*

15) Charles W. Bailey, Jr., *Google Books Bibliography Version 6*, 2010, <<http://www.digital-scholarship.com/gbsb/gbsb.htm>> [cited 2011. 1. 11].

16) 남영준, 양지안,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메타서치시스템 이용행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7권, 제3호(2010. 9), pp.307-323.

로 검토한 자료는 도서관연구소의 논고(가¹⁷⁾) 거의 유일한 저술이라 할 수 있어,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구글 등 포털의 도서검색서비스에 대한 도서관계의 대응방안은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구글도서검색 관련으로는 국외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¹⁸⁾ 다양한 저술 가운데 도서관과의 관계 및 도서관계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다룬 연구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구글도서검색 서비스에 대한 출판계의 엇갈린 반응과 마찬가지로 도서관계의 반응 또한 지지와 우려의 목소리로 나뉘어 있다. 도서관계와 관련된 우려의 극단에는 구글도서검색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정보자원への 접근은 놀랄만큼 향상될 것이지만 기존의 물리적 장서를 보유한 도서관들은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와 같이 바겐세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견해도 있으며,¹⁹⁾ 그 반대편에는 구글도서검색이 지식정보사회의 도서관에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지지의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다.²⁰⁾ 구글도서검색에 대한 지지와 우려의 목소리는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애국법(Patriot Act) 이후로 가장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²¹⁾

감론을박의 논란속에서도 미국을 중심으로 도서관계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하버드대학교 도서관, 뉴욕 공공도서관 등 유수의 도서관들이 구글도서검색의 도서관 파트너로서 참여하고 있음은 앞 절에서 기술한 바 있다. 이렇게 유수의 도서관들이 구글도서검색에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자체적인 디지털화 프로젝트 수행시 예산상의 제약이 있었으나 구글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예산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고, 소장자료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자체 추진하는 경우 디지털로 변환한 자료의 보존을 위한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였으나 구글도서검색의 파트너로 참여하는 경우 디지털화된 자관 소장자료의 보존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는 점도 도서관들이 협력에 참여하는 주요 동기가 되었다.²²⁾

구글의 도서 검색에 대한 지지의 이유로 정보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높여 준다는 점이 대표적인 장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자원에 대한 접근점의 개선을 통해 특정 도서관이 아닌 다수의 저명한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를 구글이라는 방대한 이용자를 가지는 검색 포털을 통해 검색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존의 정보 이용 환경에서는 특정 도서관의 OPAC(Online Public Access

17) 도서관연구소, 전계논문.

18) Charles W. Bailey, Jr., *op. cit.*

19) Marcus A. Banks, "The Excitement of Google Scholar, the Worry of Google Print," *Biomedical Digital Libraries*, Vol.2(2005). <<http://www.pubmedcentral.nih.gov/articlerender.fcgi?artid=1079792>> [cited 2010. 9. 3].

20) Kay Cahill, "An Opportunity, Not a Crisis: How Google Is Changing the Individual and the Information Profession,"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Vol.47, No.1(2008), pp.67-75.

21) Grogg and Ashmore, *op. cit.* pp.129-132.

22) *Ibid.*

Catalog)을 검색하였을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던 특정 도서관의 소장자료를 구글이라는 보편적인 포털을 통해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도서관의 입장에서 소장자료의 노출 및 발견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었고 이에 따른 이용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용자 관점에서는 구글이라는 보편적 포털을 통해 자신의 정보요구와 관련된 자료를 일괄 검색하고 검색된 자료 가운데 저작권이 소멸되거나 확보된 자료의 경우 이용자의 컴퓨터 단말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장점도 제시되고 있다. 특히 자신의 소재지에서 원하는 자료를 직접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D2D(Discovery to Delivery)서비스는 최근의 정보환경에서 이용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편의성 개선 항목임²³⁾ 고려한다면 구글도서검색이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도서관이나 정보이용자 관점에서의 장점 외에도 출판계의 관점에서의 장점도 제시되고 있다.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자인 출판계의 관점에서 구글과 협력하면 이용자 정보요구에 관련된 정보자원이 유통 중인 도서인 경우 직접 구매창으로 이용자를 안내하여 주고 절판된 자료의 경우라도 디지털 자료의 온라인 열람권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구글도서검색을 통해 이용자, 도서관, 그리고 출판계 모두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지지의 견해가 있다.

이용자와 도서관 그리고 출판계에 이르기까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은 장점들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나 반대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구글도서검색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우려는 방대한 이용자 기반을 가진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구글도서검색을 통해 정보유통분야로 전이되어 구글이 정보유통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일 것이다. 독점은 궁극적으로 비용의 증가로 귀결된다는 이전의 경험을 통해 구글이 정보자원의 유통을 독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정보의 구득을 위한 비용의 증가로 귀결될 것이며 이에 따라 자유로운 정보접근이 제한될 것이라는 시각이 그 것이다. 구글이 정보유통의 창(window)을 독점하게 되면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적합한 자원 가운데 구글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혹은 제공하기 용이한 자원을 우선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보의 의곡 즉, 의도적인 왜곡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 될 경우 전세계는 구글이 선택한 정보자원만을 열람하게 될 것이므로 구글이 제시하는 창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는 결과로 귀착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다.²⁴⁾ 이외에도 구글을 통한 정보이용시 개인의 정보이용 기록이 외부로 유출되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시되고 있다. 또한 구글이 출판계와의 저작권관련 문제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하였고 관할 법원의 예비적인 승인을 얻었지만 여전히 많은 이의에 직면하고 있으며,²⁵⁾ 설사 이러한 이견이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과 관련된

23) JISC, *The Digital Information Seeker: Report of findings from selected OCLC, RIN and JISC user behaviour projects*, 2010, <<http://www.jisc.ac.uk/publications/reports/2010/digitalinformationseekers.aspx>> [cited 2010. 7. 10].

24) 도서관연구소, 전계논문.

합의의 적용범위는 미국으로 제한되므로 미국외의 지역에서는 미국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미국과 여타의 지역간의 정보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종합하면 구글도서검색은 도서관계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우려를 동시에 던지고 있다 할 것이다. 여러 우려 속에서도 구글도서검색은 그러한 시도가 아니었다면 사장되었을 많은 자료들이 이용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도서관과 관련 기관에서 도서의 디지털화를 통한 유통의 효율화와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첨단 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노력을 증대시켰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부족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 못하였던 자료의 디지털화가 구글도서검색으로 촉진될 것이라는 점은 도서관계에 미친 큰 영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에서의 자료 디지털화가 촉발시킬 수 있는 저작권 관련 문제에 대해 도서관계 및 출판계는 구글의 케이스를 통하여 나름의 지침을 가질 수 있게 된 점도 긍정적인 효과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용자 관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희귀도서, 절판도서, 고서 등을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것도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구글도서검색의 협력파트너로 참여하는 도서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도서관계의 기대와 우려는 미국 도서관협회(ALA)의 논평²⁵⁾과 IFLA의 성명²⁷⁾을 통해 상세히 정리되고 제시된 바 있다.

3. 국내 포털의 동향

일부 국내 포털의 경우 도서관 소장자료를 포털의 검색서비스에 연결하여 검색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오픈하였고, 대학 및 전문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러한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도서관이 출현하고 있다.²⁸⁾ 국외에서 구글도서검색이 출판계와 도서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비하면 국내에서는 이에 비교할 정도로 큰 파장은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은 두 가지 관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구글의 이용자 구성과 관련하여 구글의 주요 이용자층이 서구 영어권 인구인 이유로 영어로 쓰여진 자료가 구글의 우선 관심 대상이며, 영어권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 소장된 자료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후순위이다. 이에 따라 구글이 주력하고 있는 도서관 협력 프로젝트의 대상은 영어권 도서관이며 국내 도서관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서 그 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둘째, 국내의 포털의 경우에도 새로운 서비스의 유형으로 학술정보의 디지털 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제공 형태가 참여 도서관이 소장한 디지털 정보

25) 세계일보, 전계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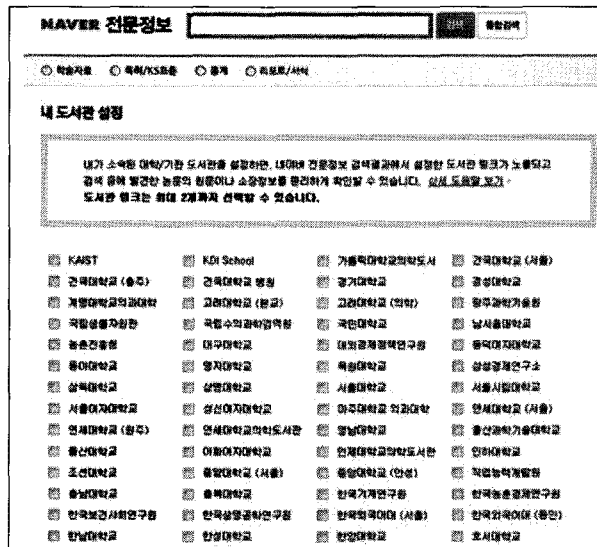
26) ALA, *Library Association Comments on the Proposed Settlement*, 2009, <<http://www.arl.org/bm~doc/googlebrieffinal.pdf>> [cited 2010. 9. 16].

27) IFLA, *IFLA Written Statement to the European Commission hearing on the Google Book Settlement*, 2009, <<http://www.ifla.org/files/clm/statements/ifla-google-written-statement.pdf>> [cited 2010. 9. 18].

28) 네이버, 전문정보 서비스 개편 3탄!, <http://blog.naver.com/naver_search/20110488391> [인용 2010. 11. 4].

자원에 대해 서지정보만을 제공하고 원문은 해당 도서관을 통해 소속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내의 경우 개별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포털에서 제공하는 부분까지를 협력의 범위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 서비스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네이버의 '전문정보' 서비스를 들 수 있다. 네이버의 '전문정보' 서비스는 이용자가 네이버의 '전문정보'를 통해 검색한 자원 가운데 이용자 소속기관에 소장된 원문정보를 이용자 단말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한글 서비스명이 '전문정보'인 이유로 전문(全文; fulltext)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서비스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이 'http://academic.naver.com/'인 것으로 유추하면 학술자료 등 전문성(專門性)이 있는 자료의 제공을 위한 서비스임을 추론할 수 있다. 2010년 11월 현재 네이버 '전문정보' 서비스는 스프링거(Springer)사의 학술정보 포함한 학술자료, 특허/표준자료, 통계자료, 그리고 리포트/서식 등 네 종류의 정보자원에 대한 검색을 제공하고 있다. '전문정보'창을 통해 검색된 정보자원의 원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을 미리 설정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용자가 네이버에 로그인하여 '전문정보' 서비스 페이지에서 자신의 소속기관을 등록하여 두면 이후 네이버 '전문정보' 서비스를 통한 검색결과 가운데 소속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원문자원을 직접 활용할 수 있다. 네이버 전문정보에 자관 소장자료가 검색될 수 있도록 네이버 전문정보 검색에 자관의 소장 정보를 연동하고 있는 도서관은 51개 기관에 이르고 있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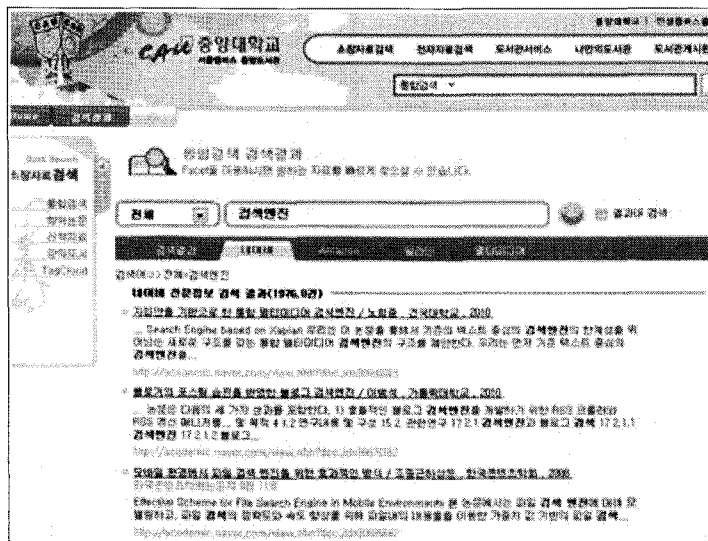


<그림 2> 네이버 전문정보 '내 도서관 설정' 화면

29) 네이버, Naver 전문정보, <http://academic.naver.com/> [인용 2010. 11. 3].

〈그림 2〉는 네이버 전문정보 서비스에서 소속기관을 설정할 수 있는 ‘내 도서관 설정’ 화면이다. 또한 이들 기관에 소속된 이용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소속기관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소속기관내에 위치하는 단말을 통해 접속하는 경우 해당 단말의 인터넷 IP 주소를 자동으로 확인 하여 해당기관의 소장자원의 원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³⁰⁾

관련된 또 다른 서비스 형태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학술검색API’를 해당기관의 도서관에서 자관의 OPAC에 연동시키는 경우이다. 이 경우 이용자가 자관 OPAC을 검색하면 자관 소장자료에 대한 검색결과와 더불어 네이버 전문정보 서비스를 통해 검색된 검색결과를 일괄적으로 제공받게 된다. 자관의 OPAC에서 네이버 전문정보 검색결과를 일괄로 제공할 수 있는 네이버 ‘학술검색API’를 적용시킨 도서관은 중앙대 등 4개교인 것으로 파악된다.³¹⁾ 〈그림 3〉은 네이버 ‘학술검색API’를 적용한 도서관 OPAC의 화면 예이다.



〈그림 3〉 네이버 ‘전문정보API’ 적용 도서관의 OPAC화면

이상 살펴본 네이버의 ‘전문정보’를 비롯하여 다음(Daum)의 ‘전문자료’ 서비스 등 국내 포털에서도 학술정보를 포함한 전문정보에 대해 도서 원문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다만 협력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의 원문정보를 포털이 직접 구축하여 제공하는 방법이 아닌 소장 도서관 및 저작권을 가진 출판기관과 유료 판매처로의 접속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글도서검색과 차이를 보인다. 구글의 경우 단행본 원문정보를 구축하고 협력 도서관 소장자

30) 네이버 전문정보 서비스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확인하였음.

31) 네이버, 전문정보 서비스 개편 3탄!, <http://blog.naver.com/naver_search/20110488391> [인용 2010. 11. 4].

료의 디지털화 작업까지를 지원하나 국내 포털의 경우 원문정보를 구축하고 있지 않으며 협력 도서관 소장자료의 디지털화까지를 지원하지는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Ⅲ. 도서관계의 대응방안

구글을 포함한 포털의 도서검색 서비스에 대해 도서관계가 취해야할 대응방안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포털과의 협력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각 개별 도서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 과정에서 도서관들이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방안 정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포털의 기본적인 성격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체라는 성격을 감안하면 전략방향의 변화 및 이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방안의 변동이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반드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도서관 외부에서 주도하는 디지털화 프로젝트의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명확히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바, 그것은 추진의 주체가 궁극적으로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체라는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이 경제적 환경에 따라 전략방향을 수시로 변경해야 하며, 이러한 변화를 미덕 내지 경쟁력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조직이므로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구글 및 포털이 추진하고 있는 도서검색 서비스의 성격이 상업적인 성격으로 급변할 가능성은 언제라도 상존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방향의 범주에는 소장자료 열람의 유료화와 같은, 지금으로서는 구글이 부정하고 있는 사업모델로의 이전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상도 가능할 것이나 그 전략방향 변화의 폭에 대해 도서관계의 상식과 양식에 따라 제한을 두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 될 것이다. 기업의 속성을 감안한다면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모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대응방안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준거해야 하는 판단과 선택의 기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대는 크게 변화되어 왔으며, 변화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이고 더욱 광범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³²⁾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요구의 기저에는 도서관이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선도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여 왔다는 솔직한 자기비판이 자리 잡고 있다. 오늘날 다수의 도서관 이용자들은 정보탐색의 시작점으로 도서관 OPAC이 아닌 포털의 검색엔진을 활용하고 있다는 OCLC의 조사결과³³⁾에서

32) JISC, *op. cit.*, pp.45-51.

33) Cathy De Rosa, *Perceptions of libraries and information resources: A report to the OCLC Membership* (Dublin, Ohio : OCLC 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2005), p.35(item no. 1-17).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도서관이 정보탐색을 시작하는 창구로서 기능치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도서관이 정보유통의 핵심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도서관계와 사서의 기득권 유지에 연연하여 서비스 제공 방안을 결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득권 유지를 판단기준으로 하는 결정은 궁극적으로 취사선택의 시점에서 이용자 요구를 후 순위로 돌릴 것이고, 정보기술의 발달 및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 이외의 많은 대안적인 정보접근 도구를 선택할 수 있게 된 이용자로 하여금 도서관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은 도서관과 사서의 기득권 유지가 아닌 이용자 관점에서의 요구를 어느 정도 잘 수용하고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1. 도서관계 자체 추진방안의 모색

구글이 도서관 소장자료를 포함하는 도서검색서비스를 추진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도서관계가 이러한 서비스를 구글과 같은 수준으로 제공하지 못하였던 것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정보의 수집, 보존, 유통을 담당한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도서관이 변화하는 이용자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글도서검색이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호소력을 갖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의 이러한 상황을 경계로 삼아서 국내에서 자원의 디지털화 및 제공 프로젝트를 도서관계가 주도할 수는 없는 것인가? 많은 장애가 존재할 것이다. 특히 예산의 확보와 저작권으로 인한 출판계와의 협력문제가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확실하다. 그렇지만 구글은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도서관계가 자원과 지혜를 모아 추진한다면 적어도 국내 도서관의 소장자료 혹은 국내 발간자료에 대해서는 해결할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이용자의 편의성 증진뿐 아니라 도서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판단된다. 특히 국가도서관을 자임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소장자료에 대한 디지털화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전체 도서관계 차원에서 추진하는 일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계의 자체 추진방안을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도서관의 경우 일부 소장자료의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전면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소장자료에 대한 디지털화가 추진되어 왔으며, 또 그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³⁴⁾ 2009년 12월에 조사된 국내 주요기관의 소장자료 디지털화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34)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디지털화 방안 연구 TF,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디지털화 방안 연구(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9).

〈표 1〉 국내 도서관 및 주요기관 자료 디지털화 현황³⁵⁾

기관명	디지털 원문 제작자료
국립중앙도서관	'97 이전 단행본, 고서, 강점기 일러자료 등 38만 9천책
국회도서관	도서, 학위논문, 국내학술지, 입법자료 등 195만건
국가기록원	관보, 총독부문서, 정부문서, 정기간행물 등 392,649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해외 학술지 및 회의자료, 국내 학위논문, 보고서 등 86,630,187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위논문, 학술논문, 해외전자책 등 D-Collection 서비스
국사편찬위원회	항일독립운동 및 군정기 자료, 주일공사관기록, 동학농민자료 등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고문헌, 문서원문 등
규장각	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
한국정보화진흥원	과학, 교육, 문화, 역사, 정보통신 등 1,251개 기관 정보화사업지원
누리미디어	간행물 1,316종 수록 논문 1,104,664건 서비스
디지털교보문고	전자책 최근간 59,000종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내 도서관 및 주요기관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현황을 조사한 위 〈표 1〉을 보면 추진 주체의 관점에서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주제분야의 관점에서는 역사와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화가 추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전자자원에 대한 수요증가와 이북(e-book)의 활성화에 부응하여 상업적 수요가 높은 학술지, 학술서적 및 단행본 자료에 대한 디지털화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화 사업가운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및 온라인 열람서비스 추진과 관련하여 두드러지는 문제점은 자료의 디지털화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으므로 막대한 소요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현재와 같은 속도로 추진하는 경우 10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그리고 디지털화된 자료의 온라인 열람 제공시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선 자료의 디지털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조달을 위한 예산확보의 문제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실제 디지털화 비용은 권당 평균 12만 5천원인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국립중앙도서관이 디지털화 대상자료로 상정하고 있는 107만여 권³⁶⁾을 디지털화 하는 데 1,339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2009년도 국가도서관 네 곳의 예산 총액이 1,370억 원³⁷⁾이었음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예산이 아닐 수 없다. 예산의 문제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한 자료의 보존과 이용 활성화가 국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도서관계의 의식 공유를 기반으로 관계 당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며 도서관계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사료된다.

35) 상계서.

36) 상계서, p.6.

37) 한국도서관협회, 2009 한국도서관연감(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9), p.443.

또 다른 주요 사안은 연간 9천권 정도를 디지털화 하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추진 속도와 관련된 문제이다. 현재와 같은 일정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상정한 디지털화 대상자료 107만여 권을 디지털화한다면 119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 디지털화의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소요 기간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일정 기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이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가운데 1997년 이전 발간 자료의 경우 디지털화가 완료되었다. 이들 자료의 저작권은 크게 저작권 소멸자료, 이용 보상금 지급자료로 대별된다. 1998년 이후의 자료의 경우 저작권이 유효한 자료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므로 이들 자료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도서관보상금'의 지불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도서관보상금'은 현재와 같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이상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및 이용을 위한 주요 문제점 및 추진방안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여 보았다. 이들 주요 과제의 해결에 더해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첫째, 디지털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디지털화를 통한 효과적인 보존과 이용 증대가 목적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상기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포함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중장기 추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중장기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1)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관련 기관간의 역할 분담 방안(디지털화 및 보존 담당 영역), 2) 디지털화 대상 자료의 선정 원칙과 우선순위, 3) 국가적 디지털화 자원의 효율적 통합유통 및 이용활성화 방안, 4)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인 표준화와 지침의 마련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³⁸⁾

이러한 국내 도서관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프로젝트가 국가적 차원에서 명확한 계획하에 추진될 수 있다면 개별 도서관들은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국가차원의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고, 이용자들은 도서관이 제공하는 창(window)을 통해 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도서관 OPAC 기능 개선

2000년 이후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이용자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으로 이용자들이 특정한 정보요구의 만족을 위해 정보검색을 시작하는 최초의 창구는 더 이상 도서관 OPAC이 아닌 구글 등의 검색 포털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OCLC의 연구에 따르면 84% 이용자가 포털을 정보검색의 시작점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도서관 OPAC을 최

38)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디지털화 방안 연구 TF, 전게서.

초의 검색 창구로 이용하는 비율은 1%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포털 의존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것과 도서관 OPAC에 대한 활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서관의 대응방안은 이용자에게 도서관 OPAC의 활용만을 강권하여 해결될 부분은 아니며 포털과의 협력을 통한 자관 소장 자료에 대한 노출 기회 증대와 이용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할 것이다. 2장 3절의 국내 포털의 동향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미 50여개의 도서관이 네이버 '전문정보' 서비스에 자관 소장자료의 서지정보를 연동하고 있으며, 자관의 OPAC 화면에서 네이버 '전문정보' 검색결과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연동을 제공하는 도서관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도서관들은 이용자들이 익숙한 포털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자관 소장자료에 대한 노출의 기회를 확대하고, 한편으로는 자관 OPAC의 일괄검색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도서관의 OPAC에서 자관의 소장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된 자료를 일괄 검색할 수 있게 된다면 이용자들이 정보탐색의 시작점으로 자관의 OPAC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자관의 OPAC을 통해 통합검색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은 포털과의 협력을 통해서 뿐 아니라 도서관자동화 패키지 기능을 통해 협력 도서관과 출판사의 소장 정보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일괄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방안으로도 시도할 수 있으며, Exlibris 사의 'Primo Central' 등을 대표적인 예로서 제시할 수 있다.³⁹⁾

이외에도 관련 이용자 연구를 통해 밝혀진 이용자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기초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이용자 연구를 종합하여 정리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오늘날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의 요구와 이에 대응하는 도서관의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다.⁴⁰⁾ 이러한 논의로 밝혀진 시사점들을 고려한다면 구글 등 검색 엔진이 제공하는 도서검색 서비스와의 협력이나 도서관 소장자료에 대한 서지정보의 연동에 도서관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

3. 협력시 고려사항

도서관계에서 구축한 장서가 구글 및 포털이라는 창을 통해 제공되고 있고 점차 확대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도서관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하는 점들과 대응방안

39) Research Information Network, *E-journals: Their use, value and impact*. London: Research Information Network, 2009.

<<http://www.rin.ac.uk/our-work/communicating-and-disseminating-research/ejournals-their-use-value-and-impact>> [cited 2010. 9. 23].

40) JISC, *op. cit.*

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구글 혹은 다른 포털의 디지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 도서관이 염두에 두어야 할 고려사항의 첫째 항목으로 제시할 수 있는 항목은 저작권 관련 사항이다. 현재 구글 프로젝트에서 저작권의 문제는 전적으로 구글이 전체 참여기관을 대표하여 정리하고 있으며 향후 도서관 협력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문제는 참여하는 개별도서관이 아닌 구글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대상 자료의 선정에 있어 저작권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용에만 국한하는 경우라도 디지털화 프로젝트의 일차적인 협력의 대상으로 저작권이 해결된 자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될 것이다. 이런 고려의 배경에는 첫째 저작권이 유효한 자원의 경우 출판사의 선택에 따라 디지털로 변환한 자원을 서비스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도서관이 해당 자원의 디지털화를 위해 투입한 자원은 사장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둘째, 협력과 관련한 조건의 협의에 있어 협력 포털 측에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해서는 안되며 추후 도서관의 결정에 따라 자체적인 활용이나 타 기관과의 협력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실제 구글도 도서관 협력 프로그램의 파트너와의 협정에 있어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지 않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⁴¹⁾ 특정 포털업체에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통해 도서관이 해당 자원을 향후 다양한 창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인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셋째, 디지털화한 자관 소장자원의 보존문제이다. 구글의 디지털화 프로젝트의 협력 도서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도서관들의 경우, 디지털화한 자관 소장자원의 보존 플랫폼을 자체 구축하지 않고 구글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협력에 참여하게 된 주요 요인의 하나였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현재의 구글이 안정된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관 자료는 오프라인 백업장비를 통해서라도 자체 보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구글이 제공하는 플랫폼의 안정성이 영속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디지털화한 자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고려이다. 구글 프로젝트에 참여한 도서관들의 경우 나름의 디지털자원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나 명확하고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소장 자원 디지털화의 목적은 디지털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보존하여 후대에 전달하고 현 세대에게는 개선된 정보환경을 통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향상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화의 근본 목적을 기억한다면 이용자에게 더욱 편리하고 향상된 정보환경을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용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구글을 포함한 포털의 도서검색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기능의 수행이다. 2장 2절

41) 구글, Google이 도서관 파트너와 맺은 계약서 사본을 볼 수 있나요?,

<http://books.google.co.kr/support/bin/answer.py?hl=kr&answer=43752> [인용 2010. 11. 3].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포털의 도서관문 제공에 대한 여러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검색포털의 점유율이 어느 정도 분산된 국내 상황과는 달리 국외의 경우 검색포털 시장에서의 구글의 점유율이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국외의 염려가 더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도 검색 포털과의 협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포털로의 집중 및 독점으로 인한 여러 잠재적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서관계가 지속적으로 감시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포털은 광고의 한 방법으로 키워드를 판매하고 이용자가 특정 키워드로 검색한 경우 키워드를 구매한 광고주의 사이트를 일반적인 검색결과에 우선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포털이 제공하기 편리한 혹은 포털의 입장에서 이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특정 자원을 우선하여 제공하게 된다면 자유로운 정보접근이라는 대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담은 자료를 우선하여 노출시킬 가능성에 대한 감시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현재로서는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천명하고 있는 상업화 문제도 구글이 방대한 자원과 이용자를 기반으로 이북(e-book) 시장에 진출할 경우 이북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처럼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IV. 결 론

큰 틀에서 보았을 때, 도서관은 정보를 보존하였다가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제공하는 것을 기본 기능으로 하는 사회적인 공기(公器)이다. 도서관은 오랜 기간 정보의 보존과 검색의 창으로서 훌륭히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정보유통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여 온 도서관은 이용자의 편의성이 개선될 수 있다면 그 방법이 도서관 자체 자원이 아닌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진정한 정보 전문가 집단의 자세일 것이라 할 것이다. 물론 그러한 외부 자원의 활용과 병행하여 도서관 자체의 역량으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만족시키고 편의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본고에서는 방대한 자원을 가진 상업 포털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검색 서비스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도서관들의 대응방안을 정리하여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대응방안 수립의 기본 방향으로 도서관과 사서의 기득권 유지가 아닌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그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도서관계 외부의 포털에서 추진하는 도서검색 프로젝트와의 협력과 활용에 대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러한 과정에서 불가피 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기인 도서관이 구축하여 놓은 귀중한 정보자원이 최적의 상태로 이용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 도서관 주도의 디지털화 프로젝트의 추진, 도서관 OPAC의 검색기능 개선, 디지털화시킨 소장자료에 대한 권리 확보, 소장자료의 디지털본에 대한 보존방안 마련 및 활용방안 정립, 그리고 포털의 도서검색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마지막으로 인류 문화유산 및 지적 산물의 보존 및 전승을 목적으로 하여 자유로운 정보접근을 지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기능의 하나로 변화하는 정보유통의 환경 아래에서 새로운 환경이 특정 회사의 이윤 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거나 부적절한 방향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감시의 기능도 수행해야 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도서관은 인류의 지식을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며, 급변하는 정보환경 속에서도 더욱 강화된 위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